

몽골족 무용으로 화제가 된 원장님, 알고보니 조선족!

요즘 많은 네티즌들이 한 몽골춤 영상을 보게 되었다. 화면 속에서 제일 앞에 있는 우람한 체격에 양복바지를 입고 구두를 신은 '아저씨'의 호방한 어깨놀림과 몸짓, 발걸음은 마치 초원에서 말을 타고 질주하는 기수 같다. 그의 춤속에서 뒤의 무용수 젊은이들보다 더욱 거침이 없어 네티즌들은 "책에서 묘사되는 강철사나이와 부드러운 정 현실 버전이다!", "이것은 골수에 스며든 멋이다. 일거수일투족에서 예술의 매력이 풍긴다."라며 감탄했다.



앞의 뚱뚱한 아저씨가 어찌하여 뒤의 날씬한 젊은이들보다 춤을 더 잘 출가?

'정장'을 입고 춤추는 이 아저씨는 대체 누구일가?

그의 이름은 강철홍이라고 하는데 중앙민족대학 무용학원 원장이다. 그리고 '내막을 잘 아는' 네티즌들은 게시판에 '제1대 <질주(奔騰)>의 메인댄서(领舞)'라는 또 다른 신분을 공개하기도 했다.

무용 <질주>는 지난 세기 80년대 초기에 탄생했는데 중앙민족대학 무용학원 교수 마약선생이 창작했다. <질주>는 몽골족 민간무용 동작을 기초소재로 하고 목민들의 생활에서 영감을 받아 자유로운 동작으로 초원에서 달리는 기수의 양양되고 분방하는 정신적 면모를 보여주었다.

기세 드높고 민족특색이 짙기 때문에 <질주>는 중앙민족대학 무용학원의 '보류작품'의 하나로 되었다. 강철홍은 제1대 메인댄서로서 '질주'의 식지 않는 예술적 매력을 대대로 물려주고 있는 것이다.

1991년 '도리검' 무용경연 10대 최고, 제1회 '공작검', 제1회 '련꽃검' 등 무용공연에서 우승을 차지했으며 몽골족 무용의 '형태와 정신' 모두를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무, 감독, 강의까지 모두 가능한 명가 강철

홍의 개인리력서 민족란에는 뜻밖에도 조선족이라고 쓰여져있었다.

강철홍이 몽골춤을 출 때 네티즌들이 본 '골수에 스며든 멋'은 '재능'이라는 한마디로 간단히 개괄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의 몸과 마음을 다한 몰두와 날마다 반복되는 연습, 최선을 다하는 집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리 부상으로 인해 강철홍은 10여

년 동안 사랑하는 무대에 오르지 못했었다. 2017년, 50이 다 된 강철홍은 '춤을 주고 싶다, 정말 너무 춤을 주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컴백'하기로 결정했고 '도리검'을 따낸 무용 <생명이 반짝인다>를 관중들에게 선물했다. 안무의 총 길이는 7분 정도였는데 이 7분간의 '반짝임'을 위해 강철홍은 두달 만에 30근을 감량하고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관중들과 만났다.

현재 인재 양성에 전념하고 있는 강철홍은 무대 뒤로 물러났지만 그의 무용스텝은 종래로 멈춘 적 없다. 그는 무용학원 학생들에게 강의를 해주고 또 전국 각지의 민족무용을 학습하려는 학생들을 위해 수업을 해주기도 한다. 학생의 기초에 따라 수업하는 주제도 다르지만 강철홍은 "춤을 추면서 배우주었고" "몸소 행동으로 가르쳐주었다". 가끔씩 무용팀에 합류해 몰입하여 시범동작을 보여주기도 한다.

최근 이 수업 영상이 뜻밖에도 '큰 관심'을 받게 되면서 네티즌들은 장난스럽게 "멈출 수가 없다! 강원장님이나 모멘트에서 하루종일 춤을 추고 있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인민넷-조문판

미니영화 《결혼등기》, 황혼재혼에 사색의 여운



▲ 미니영화 《결혼등기》 탄생에 사심없는 기여를 한 회원들

연변영화드라마협회에서 올 들어 네번째 작품으로 내놓은 미니영화 《결혼등기》 시영식이 5월 18일 오전 연길 한성호텔에서 있었다.

연변영화드라마협회 회회장 김기운이 감독을 맡고 전영실이 극본을 쓴 미니영화 《결혼등기》는 리혼한 부모의 재혼을 둘러싸고 동일한 사연, 동일한 시간대에 아버지와 어머니 두 가정에서 전개되는 황혼 재혼 이야기를 담았다. 영화는 금전 앞에서 부모의 행복은 추후도 녀두에 두지 않고 오직 자신의 리해타산에만 몰두하는 자녀들의 리기적인 태도를 통하여 현실생활 속에 존재하는 황혼 재혼에 관한 부정적인 사회현상과 인정세대를 폭로하였다.

시대 변화를 맞이하는 이때, 자녀들을 들어 내번째 작품으로 내놓은 미니영화 《결혼등기》에 사색의 여운을 남겨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변영화드라마협회 회장 김기운이 감독을 맡고 전영실이 극본을 쓴 미니영화 《결혼등기》는 리혼한 부모의 재혼을 둘러싸고 동일한 사연, 동일한 시간대에 아버지와 어머니 두 가정에서 전개되는 황혼 재혼 이야기를 담았다. 영화는 금전 앞에서 부모의 행복은 추후도 녀두에 두지 않고 오직 자신의 리해타산에만 몰두하는 자녀들의 리기적인 태도를 통하여 현실생활 속에 존재하는 황혼 재혼에 관한 부정적인 사회현상과 인정세대를 폭로하였다.

미니영화 《결혼등기》는 고령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황혼 리혼과 재혼 현상이 불가피하게 다가오고 급격한

/안상근기자

연길신화서점도 도서교역박람회 분위기 물씬

— 독서는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끈다

제1회 동북도서교역박람회가 5월 17일 -19일 장춘국제회의전시센터에서 성대히 진행되면서 연길신화서점에서도 17일 9시부터 다양한 계열 행사들이 펼쳐졌다.

'길림에서 만나 책의 향기를 함께 누리자'를 주제로 한 이번 도서교역박람회는 주전시장에 12개 전시구역을 설치하고 성내 12개 시, 현의 신화서점에 분전시장을 설치함과 아울러 16개 온라인 분전시장을 개설함으로써 온·오프라인이 상호 융합되는 열독문화 플랫폼을 전면적으로 구축했다.

연길신화서점 역시 이번 도서교역

박람회 12개 오프라인 분전시장 가운데 하나로서 독자 교류의 플랫폼을 적극 설치했는바 오프라인 도서전과 온라인 행사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형식이 다양하고 내용이 풍부한 독자 문화의 향연을 펼쳤다.

연길신화서점은 지역문화 특색을 충분히 전시하기 위해 도서전시판매, 문화포럼, 독서나눔회 및 지역특색, 문화내용과 폭넓은 참여도를 갖춘 온라인 생방송 활동들을 기획함으로써 더욱 많은 사람들을 도서교역박람회에 참여하도록 이끌었다고 연길신화서점 리영 부경리가 소개했다.

17일, 연길신화서점 4층에 마련된

연길 분전시장은 현장을 찾은 사람들로 이른아침부터 북적였다. 김림출판 그룹주식유한회사, 연변교육출판사, 연변인민출판사, 연변대학출판사, 사천소년아동출판사 등 전국 여러 지역 출판사의 부스가 눈에 띄었고 무형문화유산, 생활미학, 특색음식 등 문화창의의 제품들을 포함한 문화장터 부스도 마련되어 연변의 독특한 지역문화 특색과 매력을 만끽할 수 있었다.

전시부스 옆에 마련된 회의실에서는 '독서가 답이다'를 주제로 한 조선족 작가 김혁선생의 특강이 많은 독자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특강에 이어서는 '어린 날의 꿈 저버리지 말고 함

께 독서해오'를 주제로 한 연길시동산소학교 5학년 4학급의 독서나눔회가 펼쳐졌다.

이 학급 담임교원 구인남은 "독서나눔회 참가 차 왔는데 현장에 와보니 이렇게 풍부한 활동들이 준비되어있을 줄 몰랐다."면서 "이러한 활동들이 우리 어린이들의 독서교육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기쁘다."고 감수를 전했다.

전시장을 찾은 51명의 학생들과 2명의 교원은 다양한 도서 문화 전시부스 현장에 매료되어 너도나도 책장을 펼쳐보며 친구들과 함께 독서에 대한 열렬한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는 또 연길신화서점에서 퇴직한 근 10명의 옛 동료들이 자리를 빛내며 연길신화서점의 변화를 직접 눈으로 보고 나아가 제1회 동북도서교역박람회의 성회 분위기를 한껏 즐겼다.

한편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제1회 동북도서교역박람회 기간 연길신화서점에서는 계속하여 '신화서점' 주제 우편엽서 증정, '독서 무아지경' 도장찍기, 도서&커피 쿠폰 할인행사, 문화장터 등 활동들을 펼쳤다.

"새시대명실천기지로서의 연길신화서점은 문화 선도 역할을 적극 발휘함과 동시에 다양한 문명실천 활동을 조직하는 것을 통해 국민의 문화소양을 향상시키고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고양하는 한편 신화서점 자체의 풍부한 도서자원을 리용하여 대중들에게 편리한 열독 서비스를 제공해 전민독서의 량호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제1회 동북도서교역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일조했다."고 연길신화서점 리영 부경리는 덧붙였다.

/김가혜기자



▲ 전시장을 찾은 51명의 학생들과 2명의 교원은 다양한 도서 문화 전시부스 현장에 매료되어 너도나도 책장을 펼쳐보며 친구들과 함께 독서에 대한 열렬한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우리 성 작가 장동매 제 10회 짧은 소설 금참새상 수상

우리 성 작가 장동매(蔣冬梅)가 짧은 소설 <큰 호수>, <야밤의 서류>, <흰 매>, <도금>, <암용>, <망천아>, <별목>, <미주에 커피를 더하다>, <남해를 달리다>, <림계영을 아슬 수도> 등 10편으로 제 10회 짧은 소설 금참새(金麻雀)상을 수상했다.

짧은 소설 금참새상은 중국 당대문학 짧은 소설 영역에서 대표성과 권위성을 띤 중요한 상이다. 이 상은 작자가 규정한 년도내에 창작해 발표한 10편의 작품을 평의에 참가시키고 작자의 정제적인 창작 실력에 근거해 상을 평의한다.

제 10회 짧은 소설 금참새상은

2023년 12월에 공모를 시작하여 합계 181명 작자와 평론자의 작품이 평의에 들어갔다. 일선 평의위원회는 투표의 방식으로 선출한 결과를 발표했다. 10명 작자가 제 10회 짧은 소설 금참새상을 수상하고 2명 작자가 금참새상·리론상을 수상했으며 10명 작자가 금참새상·지명상

을 받았다.

장동매는 은유적인 방식으로 이야기를 서술하는 데 능한바 각양각색 인물의 심리상태와 심리변화를 여유롭게 묘사하고 부동한 시각으로 사건의 전말을 그려내면서 사회생활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준다.

/김림일보

2천년전 '신추부인'... 3D로 '부활'

선한 얼굴, 단정한 얹은머리, 정교한 치마자락... 2,000여년전 서한(西汉)시대 녀성 '신추(辛追)부인'의 중년 시절 모습이다.

호남박물관에서 17일 '신추부인'의 3D 디지털 휴먼(数字人类) 이미지를 처음 공개했다. 1970년대 마왕퇴(马王堆) 한묘(汉墓)에서 발굴될 당시 스캔했던 '신추부인' 머리부분 X-레이 자료를 바탕으로 생김새를 최대한 복원한 것이다.

호남박물관 원장 단효명은 "이번에 공개된 '신추부인' 3D 디지털 휴먼 이미지는 약 35세의 전신 좌상 버전과 약 50세의 두상 버전 두가지"라고 말했다.

전문가팀은 X-레이, 현장 관찰, 모형 측정 등을 통해 '신추부인'의 두개골 구조와 이목구비 비율을 반복적으로 정밀하게 계산해내고 거기에 현대 기술을 결합해 그의 생전 모습을 조형물로 만들어냈다.

또한 모션캡처 기술로 실제 인체의 움직임, 자세, 표정을 캡처해 디지털 휴먼에 적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마왕퇴 한묘는 서한시대 장사국(长沙国) 승상이자 대후(軫侯) 리창(利蒼) 일가 세 식구의 무덤으로 총 3,000여점(세트)의 귀중한 유물이 출토되어 20세기 가장 중요한



▲ '신추부인' 3D 디지털 휴먼(35세 좌우) 전신 좌상 이미지

고고학적 발견중 하나로 꼽힌다. 그중 1호 묘에서 발굴된 '신추부인'의 시신은 세계에서 보존 시간이 가장 긴 미라이다.

을 하반기에는 대화형 '신추부인'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출시될 예정이다. 현대인과 대화가 가능한 AI 에이전트를 통해 잘 보존된 2,000년 전 미라를 기반으로 한 세계 최초의 가상 디지털 휴먼이 탄생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신화넷

우리 나라 초나라 최고 등급 고분 발굴

국가문물국은 4월 16일 안휘성 회남(淮南) 시에서 '고고중국' 중대 항목 중요 진전 사업회의를 열고 안휘성 회남시 무왕 돈묘(墩冢) 고고학 새 발견을 발표했다.

무왕 돈묘에는 현재 주묘(1호분), 묘원, 거매갱, 부장묘, 제사갱 등 중요한 유적이 보존되어있다. 고고학 일꾼들은 주묘(1호분)에 대한 중점적인 발굴을 통해 하나의 대형 '갑자형' 수직 구멍이 무덤을 확인했다. 무덤 구멍이는 정사각형에 가까웠는데 한 변의 길이가 약 50미터이고 무덤 구멍이의 동쪽에 길이가 약 42미터인 경사진 묘도가 있었다. 현재 칠목기, 청동기 등 번호 평성 문물이 1,000건 이상 발굴되었다.



무왕 돈묘는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발굴한 가운데서 규모가 가장 크고 등급이 가장 높으며 구조가 가장 복잡한 대형 초나라 고등급 고분이다.

/인민넷-조문판